◈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1995년의 교회 성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 16:3)

새해를 맞으며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를 금년도 교회 성구로 정했다.

보다 발전적이고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하며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적인 신앙의 성장과 전파를 위하여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이때에 행여 인간이 지나치게 부각될 수도 있고 계획과 조직이 앞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일을,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살피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신년 주일예배에서 잠언 16:1-9을 본문으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라는 제목설교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위해서는 (1)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의 약속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 을 믿고, (2)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3) 우리의 의지를 마치 백지 수표를 내놓듯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4)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5) 열심을 품고 기도생활을 할 것을,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말씀했다. 특별히 기도생활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보다 먼저 가면 안되며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시작하심을 말씀했다.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은 1년 동안 이 성구를 늘 묵상하며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힘있게 살아야 할 것이다.

1월 3일, 시무식 및 신년 하례예배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도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는 원로 김창인 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모시고 전 교역자와 교직원이 모여 1995년도 시무식(사진, 상)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시무사를 통해 금년도 교회 목표인 잠언 16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새해에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비유처럼 비록 우리의 시작과 하는 일들이 미미하고 약해보여도 그것이 다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겨자나무, 가룩서말을 전부 부풀게한 누룩처럼 성장하고 창대하여 세계화의 한 부분을 담당할 것을 믿으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금년도 표어처럼 하나님의 경영학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오후 7시 만나홀에서는 교역자와 당회원 일동이 모여 신년하례 예배(사진, 하)를 드리고 원로 목사 내외분과 당회장 목사 내외분께, 그리고 교역자와 당회원 간에 신년하례가 있었다. 하례예배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시편 100편 1,2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예배, 모든 섬기는 일, 모든 교제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쁨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하례가 끝난 뒤에는 28대 장로들이 배설한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권사회의 하례예배가, 5일(목) 저녁에는 안수집사회의 하례예배가 각각 있었다.

이날은 귀성객들이 새해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와 편안히 쉬고 있을 새벽부터 긴 겨울 가뭄을 해갈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인양 수북히 쌓여가는 상서러운 서설이, 마치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팡파르처럼 모두의 가슴속까지 충만하게 내려앉아 행복이 넘치는 새해 출발이 되었다.

벌거벗은 나무에도, 칠 벗겨진 지붕위에도, 사람들이 내다버린 쓰레기더미 위에도 하얗게 덮여 온 세상이 찬란한 은빛으로 변한 것처럼, 새해엔 지난 해의 무책임과 안목과 분열과 무관심의 상처들에 싸매지고,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 더 건강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린다.

오늘 공동의회 모여
94년 결산, 95년도 예산 심의

교회는 오늘 Ⅳ부 예배 후 본당에서 '94년 결산 보고 및 9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했다. 참석대상은 우리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해당자는 모두 참석해야 한다.

또한 공동의회 후 연합교구 모임으로 모이게 된다.

태신자카드 오늘 작성, 구역장을 통해 교구에 제출

전도위원회는 오늘 태신자카드를 배부하여 태신자를 작성케로 했다. 태신자를 확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연초에 태신자를 작정토록한 것이다. 또한 예수사랑 큰 잔치가 6월에 있게 됨으로 이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면 된다.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1월 15일(주일)까지 구역장을 통해서 교구에 제출해야 한다.

충현강단

요한계시록 강해

인 맞은 144,000

(계 7:1-8)

본문 7장의 내용은 6장 17절에 제기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는 질문, 즉 이렇게 큰 재앙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이때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군가, 과연 이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바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편의상 7장은 본 계시의 일부 내용을 설명해준다고 해서 보충계시라 부릅니다.

1. 인맞은 십사만 사천 (144, 000)

본문 6장 마지막절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144, 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을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주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서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네 바람,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천사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천사장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천사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장들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대강국이라고 합니다. 예컨데 미국, 소련, 중국, 유럽공동체와 같은 4대 강국, 그런 나라와 같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마지막에 일어날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제하는 4대 강국이 바로 네 천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본문 2절에 보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했습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데 해돋는 데가 과연 어디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동쪽에서부터 구주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별이 빛났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깊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곳이 해돋는 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인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놓는 역할을 네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파괴를 뜻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폭탄이나 대포나 원자탄이 터질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온다고 한 것을 보아서 지구촌 한 구석의 조그마한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큰 전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네 천사들을 통해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들, 이것이 악한 사람, 악한 나라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집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각종 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바로 이 네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2. 인치심의 의미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인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마는 우리의 육적인 이마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아하, 저 사람은 이마가 좁은 것을 보니 속이 짜 달라붙은 것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는 바로 우리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에 우리의 인격에다가 인을 치셔서 원수마귀가 손못대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찍는 666의 사탄마귀의 인이 있고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찍는 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유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보면 전쟁포로나 노예들에게 실제로 쇠를 벌겋게 달궈서 주인이름의 첫자를 이마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로 도망을 가도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로 인을 찍는다는 말은 보호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찍으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사탄 마귀가 인을 찍었을 때는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부려먹습니다. 셋째로 인을 찍는다는 말은 사탄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물함(phylactry)을,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성물함을 네모로 만들어서 이마에 붙들어매고 살았습니다. 넷째로 또 한 가지의 뜻은 진짜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도장을 찍었느냐 안찍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인 경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지지 아니한 사람,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위에 성령의 도장이 찍혀져야 합니다.

또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목사님들만 일컫는 말이 아니고 모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나오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이 십 사만 사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레다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란의 신학자는 십사만 사천이란 12×12×10×10×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사만 사천이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닙니다. 먼저 10×10×10(103)은 1000인데 이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긴 세월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12에서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뜻하고, 다음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제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차 오실 메시야를 믿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십 사만 사천에 속해있고, 이미 오신 메시야가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십 사만 사천에 속해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심히 많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전쟁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거듭준비 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 민족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쳐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위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5년도 각 부서의 계획과 전망

예배위원회 / 위원장 김재명 장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의 모습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의 다른 활동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성도들을
유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롬 11:36).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교구의 부흥도, 전도의 활성화도, 세계선교도, 천국일꾼을 잘 양육하는 것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기초가 되며, 또 인간의 모든 노력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시 127:1).

예배가 중요하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의 다른 활동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성도들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모든 임직의 서약에 반드시 있는 항목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을 성실한 마음으로 신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헌법의 '신도' 2항에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요리문답 제1번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하여 예배를 강조합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소요리문답 46-62번). 그리고 '헌법적 규칙' 제4조에는 예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 에는 18개 장을 두고 예배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5대 목표중 첫번째가 '신령한 예배' 이며 95년도 목회지침의 첫번째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입니다. 주간충현 293호(94.11.27)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95년도 예배에 대한 목회지침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예배위원회는 이 목회지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해야 한다" 는 지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자와 대표기도자에게 기도 내용중 삽입을 부탁드리며, 찬송 선정과 찬양대 곡목 선정에도 협조를 구합니다.

2. '예배 시작 10분전 착석' 을 위해서 교구 모임에서 각 구교별 교육을 부탁드리며, 주보의 기도제목에 대해 기도하게 하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찬양, 기도원 집회에서도 기도해주도록 협조를 구하며 범 교회적 운동으로 정착되게 하겠습니다(약 4:2 하).

3. 예배 분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족환영'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잘 교육된 환영위원들이 빠르고도 친절한 환영에 힘쓰게 하겠으며, 안내위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섬기는 태도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배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일꾼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여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겠습니다.

5. 헌금위원을 고정, 전문화하기 위해서 주간충현 298호에 게재하고 교구별로 교역자들의 협조를 얻어 인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거쳐서 늦어도 3월부터는 헌금시간의 단축과 질서와 경건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성찬 횟수를 증가시켜서 격월로 연 6회 실시합니다. 금요일 세례식을 행한 바로 다음 주일에 성찬을 행함으로 세례받은 감격을 연장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해서 더욱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7. 찬양예배시 각종 행사를 지양함으로써 예배와 행사를 구분할 줄아는 성도들이 되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8. 새벽기도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9. 기도실에서 취침하거나 기타 기도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찬양대, 교사,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배, 안내, 헌금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만 특히 예배위원회의 계획과 전망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명하신 충현의 성도님들과 일꾼들의 자발적인 예배에의 헌신이 있을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세가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예쁜 꽃은 시들어 추하게 되고, 어린애의 웃음도 몇해가 지나는 사이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말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한결같이 아름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퍼낼수록 한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쳐흐릅니다.

그런데 여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프로포즈해오는 분이 계십니다.

찬양위원회 / 위원장 김은호 장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음악은 있지만 영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찬양대 안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개인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94년도에 찬양대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케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뒤에서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임원들과 열과 성으로 지휘를 해주신 지휘자와 반주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에는, '삶으로 찬양하는 찬양대' 란 표어 아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름에는 연합으로 수련회를 개최하여 은혜가운데 마쳤고, 성탄절에는 헨델의 메시아를 연합으로 연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찬양대의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각 찬양대별로 몰랐던 대원들을 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라는 표어 아래 94년도의 발전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찬양대의 95년도 목표는 첫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입니다. 둘째 질적으로 성숙하는 찬양대입니다. 악보를 자주 보며 실력을 키우는 대원들이 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음악적으로 실력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양적으로 성장하는 찬양대입니다. 각 찬양대별로 10% 이상의 성장목표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신입대원들을 영입하여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하나되는 찬양대입니다. 연합 및 공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먼저 인사하고 이름을 외우는 운동을 전개하여 전 1,300명의 찬양대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영성이 있는 찬양대입니다. 음악은 있지만 영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찬양대 안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개인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도록 도와 주겠습니다.

찬양위원회의 95년도 주제 성구는 이사야 43:21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인줄 알아 열심히 우리의 열과 성과 힘을 다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 / 위원장 오정헌 장로

300명의 양육위원 교육과 훈련

새가족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모두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새가족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이합니다. 한 부서가 3년째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 충실하게 성장해나간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에 2,000 - 2,500명의 새신자가 있습니다. 이 새신자 중에는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여러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고(그중에는 직분자도 꽤 많습니다) 전도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적응반을 편성하여 우리 교회에 대한 안내와 봉사할 수 있는 부서, 등을 설명하며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6개월 과정의 새가족양육부의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 수료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간 잘 출석하여 수료한 사람들에게는 문답을 거쳐 학습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모두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개월 과정의 정규교육 외에 개인적으로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양육위원을 두고 양육위원들이 새신자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는 문제는 양육위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가족위원회의 금년의 가장 큰 과제는 각 교구에서 10-15명 정도로, 전체 300여명의 양육위원을 철저하게 교육, 훈련시켜 새가족 각 개인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교구 양육위원들은 교구내에서 새신자에 대해 대모(代母)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 여전도사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연령층에 맞추어 각 교회학교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곳에서 적응을 못하면 교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를 위해 각 교회학교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교회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가족위원회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잘 숙지하여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섬김과 봉사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일도 새가족위원회만의 일이 아니고 전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귀한 일입니다.

새가족위원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원만해 질 때 교회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전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위원회 / 위원장 노광헌 장로

94년의 회고와 95년의 전망

기독교인은 정직하며 거짓말을 아니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손해가 나도 책임을 감당하며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 것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 곧 기독교문화 창달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기 2003년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즈음이면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등을 교회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어 어떤 모습의 충현교회로 성장되어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해 또 한 해 허송세월하다가 성장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해를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이 노력하지도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전망해 봅니다.

94년도를 돌이켜보며 우선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예수사랑 큰잔치인데 3년에 걸쳐 실시되었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94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무려 2,700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93년말 장년 주일예배 출석인원수가 9,900명이었으니까 지금쯤은 12,000명은 되어야 하는데, 94년 12월 통계숫자는 9,700명선을 오르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 전도와 동원은 그런대로 되었지만 새가족들을 양육하여 우리 교인으로 정착시키는 일에는 성과가 좋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새가족 정착의 저해요인이 발견되는데, 이 요인들을 제거하면 1995년도의 예수사랑 큰잔치는 더욱 풍성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요인을 하루 속히 뿌리 뽑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최우선의 과제임으로, 새해에는 꼭 실천되어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새가족 위주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드러난 몇가지 문제 중 양육정책이 다원화되어 있는 점입니다. 전도위원회 따로, 새가족위원회 따로, 교구위원회 따로, 심지어 교회학교마다 따로따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통합관리를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새가족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구역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전도회에도 가입시켜 기존의 교인과 빈번하게 접촉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일대일 양육위원이 책임을 지고 새가족에게 접근하여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교회에 다닌다는 자만에 빠져 새가족 몇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역자의 빈번한 교체는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시행착오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교역자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최우선은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맞는 적합한 교재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사람도 심방을 못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새가족위원회의 교역자는 위원회의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새가족목회가 성공되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양육위원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양육위원들에게는 철저한 사명의식과 교육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돌보고 무엇보다도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위원회의 통계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나침반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수료 후의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며 위원회의 분위기도 새가족들에게 밝고 따뜻하고 즐겁고 친밀감이 넘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있고 기다려지게 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충현교회 교인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가족에 대한 무관심, 무표정함 또 사랑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일을 고쳐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느끼는 기존 교인들의 텃세라 듣가 새가족 문제를 남의 일로 아는 자세 등은 시정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95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힘써야 할 일들을 전망해 봅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해야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앞에서도 제기한 교회설립 50주년 기념사업을 새해부터는 계획을 세워 착실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전 교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안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빈약한 자를 도우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복지법인 충현복지원의 활동이 미약했지만 새해부터는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과 시설을 보강해나갈 예정으로 복지원의 사업으로는 자폐아학교를 현재의 조기교실(유치원 수준)에서 공인된 고등학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당회가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새해부터는 착수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은퇴하는 여교역자들의 여생을 책임질 성로원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는 교역자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도 검토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랫동안 전 교인이 기도하고 있는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축도 시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의 또 하나는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문화가 자리잡은 구미 선진국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침투되어 있어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문화를 창달하기만 하면 오늘날 우리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러한 기독교문화를 이루어 놓아야 할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진실되고 검소하고 모범이 되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직하며 거짓말을 아니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손해가 나도 책임을 감당하며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 것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 곧 기독교문화 창달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일을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 난다고 하셨기에 그 귀한 말씀의 교훈대로 일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경영과 도모를 맡기고, 한걸음씩 주님가신 발자취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위원회 / 위원장 김차생 장로

행정과학화에 최선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로 개선하여
적은 인원으로 일정한 분량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행정과학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95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현의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충현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 포두주 를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금년 한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새롭게, 보다 신선하게 행정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행정위원회는 사무국을 비롯한 충현기도원, 그리고 충현동산 등의 모든 업무들을 1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실천하고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계획 및 전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정의 과학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국 행정이 비약적 발전으로 전산망이 구축되어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로 개선하여 적은 인원으로 일정한 분량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행정과학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당회의 전폭 지원 아래 실행될 것을 믿고, 최첨단 컴퓨터를 도입하여 기능적 오류라든가 취급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능률을 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는 물론 전교인 교적과 개인기록의 전산화에도 역점을 두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둘째로 직원들의 능동화에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사례(과장급 이하)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일종의 직업에 속한 것인데, 무조건 봉사를 강요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 어려운 점 등을 인내심을 갖고 잘 처리하고 있음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부탁할 일은 사무국 직원들은 교인들을 대할 때 친절에 앞장서 주시고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원 운영은 교회 방침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기복신앙이 아닌 말씀 중심의 기도운동으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도록 운영방법에 쇄신을 강구할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의 피곤한 심신을 은밀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새로운 활력소를 되찾아 복음확산에 일익을 담당토록 특별히 건의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현의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위원회 / 위원장 강 협 장로

교구부흥에 초점을 두고 전도회운영

교구의 남녀전도회에서는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구마다
실정에 맞는 전도목표와 전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전 교구가 전도로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배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1995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도의 전도위원회 방향은 교구부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농어촌 교회 지원과 같은 외부지원은 전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교구의 남녀전도회에서는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구마다 실정에 맞는 전도목표와 전도계획을 세워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대상을 찾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살펴 봅시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다음에는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 돌려서 예수를 반대하는 가정, 질병과 우환으로 근심에 싸인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우리의 이웃을 사랑과 진실로 대하면서 이웃과 함께 염려하고 위로를 할 때 돌작발이었던 이웃의 마음은 옥토로 변화되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남녀전도회는 교구내 인구분포와 성향을 잘 파악하여 기관별(학교, 관공서, 기업체, 공장, 상가…), 주거별(아파트, 단독주택…)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실정에 적합한 전도방법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교구부흥에 사명을 다합시다. 그리고 교회는 먼저 교회주변부터 복음화하려는 뜻에서 1, 2, 3교구를 집중전도교구로 정하고 모든 전도에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전 교구는 정해진 시기에 지정된 교구로 가서 연합하여 전도할 예정입니다. 여러 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1명이라도 확실히 전도하여 등록시키고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도록 인도하여 친교와 교통편의 등으로 매주일마다 잘 인도하여 세례 교인이 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에는 어린이, 학생, 어른 구분없이 온 교인이 각자가 전도하여 등록된 분들의 손과 손을 붙잡고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새신자에게는 구원을, 전도자게는 면류관을 받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큰 잔치가 되도록 지금부터 전도의 대열에 참석합시다.

교구위원회 / 위원장 강은원 장로

100교구 10만 교인을 향해

우리 충현교회는 구역마다, 지역마다, 교구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부흥이 될 것입니다

1995년 1월 현재 우리 충현교회는 27교구 880구역 9,500세대입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비전인 100교구 10만 교인을 향해 교구위원회는 95년도에 다음의 사항들을 - 기도, 심방, 행정 -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교구들이 되고자 합니다. 교구를 위해 밤낮없이 돌보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부터 매월 한번씩 우리 충현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14명의 교구장 장로님들과 131명의 지역장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역시 분기별로 기도의 불을 당길 것입니다. 400명의 부지역장 권사님들도 매주 수요1부 예배 후 사랑부실에서 뜨겁게 기도의 횃불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880명의 구역장 집사님들도 매주 수요 1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며 구역의 부흥을 위해 소리높여 기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2월부터 4월까지 석달 간에 걸쳐서 전체 교구가 순번제로 24시간 연속적으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충현교회는 구역마다, 지역마다, 교구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부흥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9,500세대 모든 교인들이 1년에 적어도 한번은 교구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심방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구 담당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엄청난 수고의 땀방울이 깃들겠지만 교우들이 심방을 피하거나 연기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질서있게 움직이고 빈틈없이 짜여진 행정의 교구활동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구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교구가 되기 위해서 긴밀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잘 알아갈 때 피차 기도제목이 형성되고 교구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고, 한 발자욱 두 발자욱 차근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95년에는 이와같은 걸음을 걸으려고 하며 이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를 앙모하는 바입니다.

재정위원회 / 위원장 김영개 장로

모든 예산을 현실화 - 매달 시산표 작성

단 1전이라도 절약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쓸 것입니다

심히 격동했던 국제정세 속에서도 94년 한해 동안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웠던 때에도 예산에 넘치는 교회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진력해 주신 여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정성으로 바쳐진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재정은 그 어느 기업체나 단체 재정보다 더 신중히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정확하게 1전이라도 절약하여 유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추호라도 즉흥적이거나 전시적으로 쓰여져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95년 새해 우리 교회의 재정운영은 다음 세가지 방침 아래 운영하고져 합니다.

첫째 각 위원회 및 모든 부서의 예산을 현실화하고져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전건축 봉사관 건축 등으로 건축예산을 세우다보니 실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부족되어 보조금, 찬조금 등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새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현실화를 하고져 합니다.

둘째로, 각 위원회 및 각 부서의 회계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져 합니다. 예산 현실화를 위해서는 각 위원회 및 각 부서는 모든 수입(회비, 찬조금 등)과 지출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부기입은 복식부기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전에 시행서(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당회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시산표를 작성하여 자체 검증을 하며 매월 시산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내가 속해 있는 부서만을 생각지 마시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예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장부정리가 되어있어야 어느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단 1전이라도 수입과 지출이 분명할 뿐더러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잘 짤 수 있는 평가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와같이하여 단 1전이라도 절약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교회는 재정운영체계나 그 내용에 있어 타교회의 모범이 되며 나아가서 사치와 허영과 낭비가 편만한 이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일반 경상부예산 외에 특별회계예산으로 제2교육관 건축과 길림성기독교신학원 설립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울러 교회 재정을 위한 여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당 회 / 서기 우기전 장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겠습니다

우리는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95년이라는 소망의 새해를 열어주셨으니 이 한해를 가장 소중하게 살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하고 두번 다시 오지 아니할 1995년이라는 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와 논의를 거쳐 교회행사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하는 기회가 되어 이 나라의 복음화에 기여하고 세계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5년도 우리 교회 중요 행사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집사와 권사를 뽑는 일이 3월에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 선거는 장로선거와 나누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례식과 성찬식을 연계해서 거행하되 년 6회 실시합니다. 세례식 주일에 성찬식을 하므로 감격과 결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를 6월에 시행합니다. 금년에도 외형보다는 내실있는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생활입니다. 어느 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6월이 지나면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연말까지는 제2교육관을 봉헌키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재정지원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교회적으로 봄에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도원 확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 가을에는 제5회 충현올림픽을 하여 우리 교우들의 체력향상과 친교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단합된 충현인의 의지를 과시할 것입니다.

· 북방선교와 회교권 선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우리 교회가 설립된지 40년이 넘었으므로 교회설립 50주년을 준비하는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수도노회에 속하였으나 교회가 역삼동으로 옮겼으므로 동서울 노회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교회 예산은 작년대비 10%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마음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교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은 검소하고 절약하고 근면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기강이 흐려지는 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철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봉사정신이 왕성하고 근검 절약하는 일이 우리가 기도하며 가꿔야 할 기독교문화가 아닐까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건축위원회 / 위원장 최대원 장로

제2교육관,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

교회가 건물의 외형만 자랑해서는 아니되겠지만
천국일꾼과 세계선교를 위한 공간을 열심히 짓는 일이
세계적인 충현교회가 담당해야할 몫이라고 봅니다

95년도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우선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며 교우 여러분께 기도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하였구나 하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5년도에는 제2교육관의 신축, 중국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 등과 같은 굴직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층으로 된 제2교육관은 95년도 3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실이 모자라 각 주일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제2교육관이 완공되면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일꾼 양성 은 우리 교회 목표의 하나입니다. 양질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향상이 필연적이기때문에 후손에 부끄럼 없는 훌륭한 교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또 중국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선교역사를 보더라도 성공적 선교의 관건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군병들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중국 복음화 역시 훌륭한 선교사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중국 복음화에 차질이 없도록 훌륭한 신학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 교회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물의 외형만 자랑해서는 아니되겠지만 천국일꾼과 세계선교를 위한 공간을 열심히 짓는 일이 세계적인 충현교회가 담당해야할 몫이라고 봅니다. 새해에도 건축위원회 위원 모두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교육위원회 / 위원장 정하우 장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시다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천국일꾼 양성에 맞게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도자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활동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화 물결에 밀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동서울 노회시대와 세계화 문화 속에서 새출발하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31년전에 세운 천국일꾼 양성의 교회 목표아래 꾸준한 발전을 유지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김창인 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수많은 교사들의 눈물어린 수고와 협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기도와 땀으로 지원해주신 믿음의 어른들과 형제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교육위원회 산하의 13개 부서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과 충현교육연구소의 교육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한해동안 계획되는 과제를 충실히 실행코저 합니다.

1. 교회 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쓰려 합니다.

교회교육은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에 빛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목표의 대부분은 교육내용의 질적인 면보다는 회집의 양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왔고, 메시지 중심보다는 외형적인 사회분위기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생활 기준에 있어서도 크게 변하여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시대적 중심에서 편의적 관습에 따르려는 모습을 성수주일 문제에 있어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천국일꾼 양성에 맞게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도자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활동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령한 예배의 즐거움을 갖는 교육, 메시지와 공과교육의 일체화 및 생활의 실천과 전도요원화에 이를 수 있는 체제로 가꾸고저 합니다.

2. 교사의 요원화 교육을 강화하고져 합니다.

학생의 생활지표는 학부모나 지도자의 신앙생활을 본받게 되는 바 교사의 정교사화로 정병화하고, 자질향상과 소명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인 각종 훈련을 통하여 요원화하고 내가 만난 주님의 모습을 학생들과 함께 생동력있게 전도하는 반운영을 하도록 하며,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는 전 교사가 되도록 힘쓰려 합니다.

3. 학생의 요원화 교육을 유도하려 합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의 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면려회의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능동적인 전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서의 특성에 맞는 기능별 교육의 강화로 사회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교육지원의 행정을 단순화 했으면 합니다.

교회교육의 지원과 회계관리의 합리화를 이루고, 행사 업무와 인원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저 합니다. 따라서 부처별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각 부서장의 업무 숙지편의를 도모하고, 회계업무를 전산화하며, 예산집행을 현실화하고, 물품관리를 단순화시켜 불필요한 시간도비를 억제케 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과제를 성취하는 데는 교사님들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성도님들의 뜨겁고 지속적인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교육위원회 / 위원장 손동운 장로

재정 현실화의 정착과 과감한 투자를!

다시 말해서 과감한 투자로 명실상부한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95년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교회학교 재정 현실화로 교회학교 발전의 큰 획을 긋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사가 부담없이 교육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겠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으나 미비한 점은 보완하면서 지도하고 또 해당 책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면 재정현실화는 속히 정착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을 간소화 하면서 교육과 행사를 잘 지도하며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 및 절차상의 문제로 주교 행사나 성장을 위축시키는 재정 현실화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내일의 역군이요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 교계와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양육하며 세계 선교사와 세계 지도자를 양육하는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면려회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해당 부서와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교회가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보완되어야 할 교육환경 개선이 교회학교 교육 향상은 물론이고 교회 성장에도 필수 요건으로 부각되는 바 이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감한 투자로 명실 상부한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함께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위원회 / 위원장 마성락 장로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봉사위원회에서 차량부, 미화부, 구제부가 있어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중 다섯번째가 지역사회 봉사로 되어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금년에는 봉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자폐아를 위한 학교설립을 적극 추진하며 은퇴한 여교역자를 위한 성로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 차량부, 미화부, 구제부가 있어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된 제2교육관 건축과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에 주차질서를 지키고 서로 양보하며 협조하는 가운데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차문제는 이제는 온 교회적인 문제가 되어 당회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봉사위원회 내의 차량관리위원들도 예전보다 다른 각오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차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주차질서가 지켜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는 우리 교회가 크게 신경쓰며 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94년도에도 우리는 대내구제보다 대외구제에 힘써서 많은 구제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어촌 교회지원, 구청에서 요청해오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각 구호단체와 협조한 지원, 사랑의 쌀 나누기에 적극 동참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힘껏 도왔습니다. 금년에도 대외구제에 적극 힘써 당회장 목사님의 방침과 같이 대사회에 나누어주는 일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봉사위원회나 이에 소속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충현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할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미화부는 교회내외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모두가 힘써서 아름다운 교회 환경을 만드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 / 위원장 박승준 장로

95년을 행정감사 원년의 해로

각 위원회의 제 규정과 기준에 의거하는
행정기능감사를 하고저 합니다. 일반 행정, 교육행정, 교회행정 등이
올바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1995년을 회년이라 하기보다는 「회년이 회년이 되게」해야 할 것이며 한국 교회는 새해에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심층있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할 합동측의 대표적 교회의 하나인 충현교회를 보는 안팎의 시각은 주목되고 있으며 그만큼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42세를 맞게 된 충현교회에 대한 세계의 보수교회는 너무나 많은 기대와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어부로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적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현하는 일과 현대를 살아가는 상담자로서 치유의 목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양육계획, 재가족을 위한 양육비전, 기성교인의 영적성숙과 함께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야말로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병든 사회로, 세속문화로 사탄의 역사가 번지고 있으며 우리의 차세대들의 역사관, 가치관, 문화관은 건강한가 하는 많은 의심속에서 영적타락과 영양실조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소생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구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불치의 시한부 인생을 향한 교회의 치유역사는 쉬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할 것은 교회의 갱신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교회의 갱신은 잊어서는 아니될 필수과목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의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때 참 교회의 모습을 갖게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감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감사위원들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당회산하 위원회 기관 행정실무부서 자치회가 감사대상이 됩니다. 회계감사, 행정감사, 당회가 의뢰한 감사로 업무가 주어졌으며 감사의 구분으로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서면감사, 현장감사로 나누어집니다. 감사위원회 규정(1992년 11월 제정)에 따라서 명시된 행정감사는 그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95년을 행정감사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제 규정과 기준에 의거하는 행정기능감사를 하고져 합니다. 일반행정, 교육행정, 교회행정 등이 올바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서는 물론 가능과 역할에 장애요인은 없으며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의 진척도는? 등의 내용으로 교회성장의 초점을 맞추고 각 부서 행정과 기능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교회안에 적당주의와 무사안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속에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으로 모든 일군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종과 감사위원들을 위해서 제언과 기도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교위원회 / 위원장 남선우 장로

우리의 소원 - 북한에 교회짓는 일

두 세계가 아직도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북방세계(공산권)요, 다른 하나는 회교권이고 북한은 우리의 절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거니와, 회교권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3년 9월, 교회설립 40주년과 아울러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에 본격 동참한지 22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선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년 전 인도네시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여 충현선교의 장정을 개시한 후 그동안 각 대륙으로의 파송이 이어져 왔으며, 지금도 우리교회의 선교적인 열기와 잠재력은 여전히 왕성하다. 이제 4반세기 여간의 선교적 역사를 기반으로 하면서 1995년도에는 선교의 일대 중흥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적 주제에 대해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미 밝히신 바 있다. 그것은 지금 세상이 성경에 예언되어진대로 종말을 향하여 급변하고 있다는 영적 시기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만큼 복음전파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두 세계가 아직도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북방세계(공산권)요, 다른 하나는 회교권으로 북한은 우리의 절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거니와, 회교권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역군들은 "땅끝까지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면서 1995년의 벽두를 맞아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선교의 꿈과 환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수십년간 기도의 소원으로 품어 왔던대로 북한에 교회를 짓는 일입니다. 둘째는 중국 길림성에 신학원을 건립하면서 거기서 선교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셋째는 회교권 사역을 위한 기지화 작업을 중동인근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5대양 6대주 전체를 늘 기도의 품 안에 품는 일과 특히 소위 '10-40 선교창문' 지역의 미전도소수종족 선교에도 선교전략적 관심을 가지고 여타 선교기관들과의 협력과 정보 및 자료 공유에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올해에도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단기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추진하고, 기존 파송선교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성하며, 또한 현지선교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리교회 성도 모두가 선교기도위원이 되어 강력히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미 매주 수요일 오전 10:00-10:45에 선교기도회가 각 선교권별로 주최하면서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선교기도위원은 우리교회 교적을 가진 성도는 누구나 될 수 있고, 수요선교기도회도 누구나 매주 와서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실행위원은 선교적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청원할 수 있는 생동적인 선교주체가 되도록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 선교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면서 힘써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변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선교의 열정을 뜨겁게 품고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적으로 진력해 나가는 199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판국 / 국장 이종국 장로

온 교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간충현>으로

흔히들 당회의 결정사항들이 전달되면 이 내용들이 전 교인들에게
확산되어 공동체적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홍보의 미숙과 무관심으로
참여 기회를 잃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1995년 희망찬 새해를 맞는 <주간충현> 애독자와 성도들에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햇수로 따지면 약 7년전 1989년 3월 4일 <주간충현>은 창간되었습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 선배 장로들의 기도와 땀으로 쉬는 일 없이 계속 발행케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관계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개교회로써 주간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행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편집 내용에 따른 집필자의 확보, 그리고 교회 기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기사작성, 편집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봉사정신을 겸비한 인재가 있어야 하는데, 초창기엔 그런 조건들이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담당하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교회의 전적인 지원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충현교회 기관지일뿐 아니라 성도가 함께 하는 언론매체임을 인식하여 설교나 신앙간증의 뜨거운 열기와 교회와 당회장의 목회계획 등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사 작성, 제목의 크기 선정, 이에 따른 사진 게재, 배열 그리고 해설란을 실으면서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떤 행사나 사업 등이 기획되어 발표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온 성도의 기도 지원, 청원, 분야별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하고저 합니다. 흔히들 당회의 결정사항들이 전달되면 이 내용들이 전 교인들에게 확산되어 공동체적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홍보의 미숙과 무관심으로 참여 기회를 잃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면구성도 신경을 써 편집하되 글자 나열식의 편집을 지양하고 사진을 곁들이고 제목의 크기 등을 잘 조화시켜 시각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저 합니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의 전적지원으로 최신형의 첨단 기기들을 구입하여 종전보다 더 생동하는 신문을 만들고저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오자, 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읽다보면 오자 혹은 탈자가 있어서 문맥이 연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고유명사인 이름이 틀려서 당사자를 당혹케 하는 일들이 있었으나 철저한 교정작업을 거쳐 틀린 활자가 없도록 하고, 필름교정까지 확인하는 인내성있는 교열작업을 할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 문화 창달에 앞장서도록 힘쓰겠습니다. 시 한편, 수필 한쪽, 신앙꽁트, 전도체험기, 믿음의 삶의 애환, 그리고 지내온 과정을 반추하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모아 독자들의 구미를 돋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주간충현>은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신문으로 웅비할 때입니다. 교회내의 토막소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오묘한 이치들을 활자화하여 기쁨을 주며, 위안을 주고, 성도간의 교제와 사랑의 활화산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세계선교와 북방선교에 주력하는 충현교회가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간충현> 발행에 묵묵히 애쓰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더욱 애정어린 편달과 기도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부에서 공부하며

이제는 길잃지 않는 착한 양이 되겠습니다

박 정 자
(새가족양육부)

한달 전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된 새가족 교육, 그 네번째 주에 목사님께서 드디어 숙제를 내주셨다. '예수님 믿기 전 나 - 예수님 믿게 된 경위 · 그리고 그 후 나'를 간단히 써서 다음 주에 제출하라고 하신다. 숙제를 해야 하나, 하지말까? 그러나 모두가 나처럼 숙제를 안한다면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 도리가 아니다. 나는 숙제를 해야지.

23세에 결혼해서 내년이면 결혼 20주년. 시어머니께서 믿는 분이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믿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전도는 거의 공포에 가까웠다. 나도 남편도 둘다 직장에 다니는지라 일요일 하루만은 딱 쉬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께서는 일요일마다 방문앞에 지켜서서 교회에 나가라는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어느날 함복을 하고 동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점하게 된 성경 말씀. 놀라움은 그 속에 있었다. 신약부터 차근히 읽어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던 부분은 모두가 예수님 가르치심에 역행하여 살고 있던 나의 부분들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나는 무척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다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다.

남을 사랑하기 힘들다 -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른다 - 70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몇마디 만으로도 나는 숨이 트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어렵고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고 나보다 믿음생활 오래하신 선배님쯤으로 여겨져 든든하였다. 매우 가까운 사람부터 차츰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니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믿기 전 나는 속으로 '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였으나, 사람 사랑하기가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하며 노력하는 중에 나의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풀림을 느끼며 신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한 일년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면으로 안정이 되고 살만해지니 다시 남편과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안다니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며 성경말씀도 읽지 않았다.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 아니 더욱 나빠졌다. 그래서 한 달 전 남편과 나는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자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권하시는 대로 새가족 양육도 은혜 가운데 받고 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끝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식삼고 기도로 호흡하며 이제는 길 잃지 않는 착한 양이 되겠습니다.

전화로 신성종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700-4403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성시낭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충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95년도 청지기훈련, 1월 25일부터 시작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자'

직분별 훈련을 강화, 연초 단기수련회겸해

95년도 청지기훈련이 오는 1월 25일(수)부터 3월 2일(목)까지 실시된다. 그동안 청지기훈련은 충현기도원을 이용 1박 2일로 교구별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 청지기훈련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실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청지기훈련이 일종의 직분자 훈련인데 전 직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시함으로 실제적인 직분자 훈련이 될 수 없었다는 평가에 따라 각 직분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금년부터 이를 바꾸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예년에는 4월, 5월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1박 2일로 실시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연초에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로 정했다. 따라서 금년의 청지기훈련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던 단기수련회와 4, 5월에 실시하던 청지기훈련을 통합한 내용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단기수련회가 짧은 시간에 직분 및 분야별로 모이기에 2, 3가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없었음을 감안해서 금년 청지기훈련에는 매주 수, 목요일에 한 직분씩 모이게 됨으로 자신이 필요한 직분의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게 준비했다.

일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시 간	대 상
1차 주간 - 1월 25일(수) 저녁예배	전 직분자, 청년, 대학생
2차 주간 - 2월 8일(수) 저녁예배	목사, 장로, 권사
9일(목) 저녁	
3차 주간 - 2월 15일(수) 저녁예배	청년, 대학생전도회, 차량관리부교회, 직원
16일(목) 저녁	
4차 주간 - 2월 22일(수) 저녁	교구일꾼, 새가족양육위원
23일(목) 저녁	새가족위원회
5차주간 - 3월 1일(수) 저녁예배	교사, 찬양대
2일(목) 저녁	

-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시(7:00 - 8:00) 공통예배
  예배 후(9:15 - 9:30) 직분별 훈련(내부강사)
- 매주 목요일 저녁 특강(7:30 - 9:00) 직분별 특강(외부강사)
  토의 (9시 - 9:30) 직분별 기도회(내부 강사)

대입 본고사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1월 9일(월), 13일(금), 17일(화),

교회학교 대학부는 대입 본고사를 앞둔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를 오는 1월 9일(월), 13일(금), 17일(화) 오전 9~12시까지 베다니홀에서 열 계획이다.

금년에는 대학들의 본고사 날짜가 각각 달라 그 날자에 맞추어 기도회를 실시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대입 본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재학생과 재수생) 학부모이며 인도는 대학부지도 장봉생 목사이다.

학원전도회 95년도 겨울수련회

학원전도회에서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교회부근에 있는 학교 신우회 소속 교사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전도의 사명과 상호 유대강화를 통한 교회학교 부흥을 목표로하여 오는 1월 26일(목), 교회 갈릴리홀에서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예년에는 우리 교회내의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금년에는 그 대상을 교회 부근 학교의 신우회 조직의 교사들과 또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까지 대상을 넓혀 상호협조와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예신부 개교예배 지난 1월 1일(주일) 예비신랑신부 교육부(예신부)가 개교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교우로서 결혼예정 커플은 예신부에서 8주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수여된다. 장소는 교육관 208호이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40분까지이다(신청서 : 사무국 비치).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 신성종 목사님 : 9일(월) 에스라운동본부 기획위원회,
   12일(목) 이천군 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 기도회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며 제1차 세례식과 성찬식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이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고등부 겨울수련회 개최

1월 11일(수)~13일(금), 충현기도원

교회학교 고등부가 오는 1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의 막을 올리며 수련회를 실시한다. 학생 300여명과 교사 50여명이 참석하여 치루게 될 금번 겨울수련회는 기도훈련과 학생 상호간의 팀웍과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토의 등으로 심도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사는 고등부 지도 김창수 목사, 주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

다음 주일(15일), I~IV부 예배시 성찬식

금년들어 첫번째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이 오는 13일(금)과 15일(주일)에 거행된다. 교회는 2개월에 한번씩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을 갖기로 했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12일(목) 오후 7시까지 교육관 307호실에 나와 예비교육 및 문답을 내쳐야 한다. 학습세례식은 13일(금)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실시한다.

1995년도 선교연구원생 모집

세계선교는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들고자 하여 세계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충현의 성도들, 특히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서 수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해외로 이주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충현의 선교역군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1995년도 선교연구원생을 모집합니다.

- 훈련기간 : 제5기 과정
  (1995년 1월 첫주~1995년 12월 마지막 주)
- 자 격 :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사(tentmakers)로 사역하기 원하거나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대학부 이상의 충현교회 세례교인
- 교육시간 및 장소 : 매 주일 14:30-16:40, 연중무휴,
  장소는 베다니홀.
- 강사진 : 국내 저명 선교학교수, 현장 선교사역자

- 특 전 : 1년 이상 수료한 성도는 본인의 청원시 심의 후 본 교회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고 각종 선교자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집기간 : 1995.1.29(주일)까지
- 등 록 비 : 1년(52주) 20,000원
- 접 수 처 : 교육국(교 503-505), 소정양식 의거
- 면 접 : 추후 통지
- 개 강 : 1995. 1. 1(주일) 오후 2:30 베다니홀